소년단

1959.3

아이들아 새 봄이 왔다

안 룡 만

돌 돌 돌…시내'물이
솟아 흐르는 소리
퐁 퐁 퐁…얼음장 깨치고
내'물은 흐르며 속삭이누나

시내'물은 무슨 이야길
진종일 그렇게 속삭일가요?
버들방천 내'가에 흐르는 소리
즐거운 노래로 들려 오누나

—아이들아 새봄이 왔다
5개년 계획을 두 해 앞당겨
천리마로 달리는 이 땅에
산 넘어 들 건너 새봄이 왔다

조합 아저씨들 수령님께 다진
알곡 증산의 맹세를 지켜
한 겨울 두엄데미 실어 나르고
인제 발 갈이 씨 뿌리는 봄—

아지랑이 감도는 벌판에
우리 나라 뜨락또르 엔진'소리,
희망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
황금나라 이삭마다 물'결치리라

시내'물이 돌돌돌 흘러나리며
고향마을 봄 소식을 속삭이는데
철이와 분이도
즐거히 주고받는 앞날의 이야기…

—얘, 난 크거들랑
뜨락또르 운전수가 될테야.
넓고 넓은 벌판을 갈아번지는
발갈이 선수가 될테야.

—얘, 난 크거들랑
다수확의 명수가 될래.
오곡이 금물'결 출렁이게 될
조합에서 일하는 기사가 될래.

이 때 해'님도 하늘 복판에서
벙실벙실 웃으시며
시내'물에 반짝반짝 빛을 뿌리며
즐거운듯 말씀하시겠지…

(얘들아, 멀지 않아 이 땅에
평화 통일의 아침이 오리라.
그 날, 남쪽 땅에도 새봄이 와서
삼천리 강산이 꽃동산 되리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3호내용

소년 유격대원들

림 춘 추　　　　그림 어 순 우

내가 독립 려단과 함께 북만을 떠나 김 일성 원수가 계신 압록강 연안의 림강현 사령부에 도착한 것은 1937년 8월이였다.

그 때 어느 산 봉우리 우에서 김 일성 원수를 다시 만나 뵈옵던 날의 감격과 그 시기에 바로 김 일성 원수의 보위 중대의 하나이던 소년 중대 대원들의 애국적인 활동 모습을 우리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소년 중대는 그 후 해산되여 일부는 김 일성 원수의 전령병으로 남았고 대부분은 각 기본 부대에 배치되여 어른들과 같이 활동 하였다)

당시 수 십명의 성원을 이루고 있던 그들은 모두가 14세부터 17세 안팎의 소년들이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부모를 원쑤들에게 잃은 혁명 렬사의 유자녀들이였으며 그 중에는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곁을 떠나 혁명 대렬을 찾아 온 소년들도 있었다.

그들은 벌써 7~8세 때부터 자기들의 부모와 동네의 애국적인 선배들로부터 혁명적 영향을 받아 왔으며 파쑈 일제에 의하여 자기의 부모 형제들과 동네 어른들이 억울하게 붙잡혀 학살되는 것을 보았었다.

고향을 떠나 싸움의 길에 나선 그들을 김 일성 원수는 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시였다. 우리들도 모두가 그들을 사랑하였으며 아끼였다.

혁명의 품속에서 자란 어린 애국자들은 김 일성 원수의 극진한 사랑과 직접적인 지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되였으며 민족적 자존심과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교양되고 단련되였다.

그들은 비록 14~15세의 어린 소년들이였으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은 불처럼 뜨거웠고 싸움에서도 용감하고 대담하였다. 그들은 당당한 혁명 투사로 힘있게 장성되여 갔다. 그들은 실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어른들에 못지 않게 심중하였으며 용감하였다.

1938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김 일성 원수는 화전현 지방에서 어린 대원들인 전 문섭, 리 을설, 리 두익 등 세 동무를 데리고 본 부대 숙영지로부터 약 20리 떨어져 있는 곳에 회의하러 가셨다가 돌아오는 도중 매복한 적들의 불의의 습격을 당하게 되였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세 소년과 함께 곬이 진 웅덩이에 몸을 피하여 적정을 살피고 계셨다. 놈들이 발사하는 탄환은 머리 우를 앵앵거리며 지나 갔다. 탄환이 날아오는 정형을 보아 적의 수'자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항상 김 일성 원수로부터 어떠한 정세하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정확한 판단 밑에 행동하도록 교양 받은 전 문섭 동무는 돌연히 소리 높이 웨쳤다.

《제 1중대는 좌측으로 제 2 중대는 우측으로 돌격!》

이 구령과 동시에 3명의 소년 전투원들은 일제히 목갑총(모젤)으로 적을 향하여 집중 사격을 퍼 부었다. 그러자 놈들의 총소리는 더 들려오지 않았다.

이날 김 일성 원수는 이 지혜롭고도 용감한 소년 전투원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소년들과 함께 본 부대로 돌아 오셨다.

전 문섭 동무의 웨치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 부대가 대부대이며 우리는 그 대부대의 척후인줄로 생각한 수십명의 적들은 황겁하여 도망치고 만 것이다.

소년 유격대원들이 이와 같이 용감하게 싸운 례들은 적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으로써 교양 받았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버이시고 스승이시며 사령관이신 김 일성 원수의 신변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희생적 정신과 애국적 열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던 것이다.

사령부를 보위하는 소년 동무들의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자기들의 맡은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우리 혁명에 미칠 수 있었던 뜻하지 않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적들은 항상 우리 혁명 지휘부의 주요 간부들을 해치려고 온갖 간악한 방법을 다 썼다. 1938년 겨울 어느날 세 명의 농민이 소금 서 말과 성냥 20여 갑을 가지고 우리들의 지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 온 일이 있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주야 분투하시는 당신들이 제일 곤난해 하는 소금과 성냥을 가져왔으니 비록 적은 물건이나 받아 달라는 것이였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소금과 성냥이 대단히 그리웠다. 일제 놈들은 성냥이 우리들 손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민들이 매호당 한 갑씩 밖에는 더 사지 못하도록

용감한 우리 형님 누나들의 발자국

영원한 심장의 노래

박 원진! 그 이름은 오늘 소년단원 출신 리 수복 영웅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우리들 가슴마다에 살아 있다.

소년단에서 자랐으며 교양 받은 18세의 젊은 민청원 박 원진 영웅은 로동당원 신기철 영웅의 뒤를 따라 피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으므로써 아군의 돌격로를 열어 주었다.

원진 영웅은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순간 전우들을 향해 웨쳤다.

《전우들이여!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르는 민청원들 앞에는 돌파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전우들 돌격 앞으로!》

박 원진 영웅의 이 빛나는 애국 정신은 영원한 심장의 노래로 이 땅에 길이 살아 있을 것이다.

까지 통제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금은 우리들의 가장 귀중한 반찬이였으나 일제 놈들의 가혹한 봉쇄로 말미암아 제때에 해결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소금, 성냥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금 보다도 더 귀중한 물품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물품을 가져온 사람들을 무경각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 이날 경각성 높은 소년 유격대원들은 소금과 성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잘 살펴 보았다.

농민들이 한꺼번에 20 여 갑의 성냥과 서 말이나 되는 소금을 가져 왔다는 것이 첫째 수상한 일이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태도라든가 행동이 진심으로 찾아온 애국적 농민들 같지 않았다.

어린 대원들은 이상과 같은 자기들의 의견을 김 일성 원수에게 일일이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소금을 먼저 그들이 먹게 하였다. 그들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다.

아니나 다를가 몇 시간 후에 소금을 먹은 그들은 모진 배앓이와 함께 설사를 하였다. 신음하는 그들을 구급 료법으로써 강심제 주사와 설사하게 하는 약을 써서 생명을 구원한 다음 조사하여 보니 농민으로 가장한 놈들은 일제의 주구였으며 두 명은 강제와 위협에 못이기여 끌려온 자들이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잘 깨우쳐 돌려 보내고 악질 주구는 처단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소년들의 총명성과 용감성 그리고 혁명적 경각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소년 혁명가들은 또한 소년 소녀로써의 천진 란만한 장난도 가끔 잘 하군 하였다.

15세의 신입 대원 리 두익 동무는 1938년 여름 어느날 산 봉우리 우에 올라 가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마침 이 때에 보초선 앞으로 큰 노루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여 오고 있었다.

리 두익 동무는 생각하기를 만약 저 노루를 잡으려면 군사 규률을 위반해야 하며 더우기 곤난한 것은 지휘부 간부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하기를 매일과 같이 전투를 하는데 조금 놀라는 것 쯤은 괜찮은 일이 아닌가고……

요즈음 고기도 몹시 바른데 하여튼 잡아서 김 일성 장군께 대접도 하고 그다음 우리도 좀 먹는 것이 어느모로 보든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쥐였던 기병총구를 노루의 이마에 묘준하고 총탁을 어깨에 튼튼히 붙이였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신 다음 방아쇠를 당기였다.

《땅…》 소리와 함께 노루는 명중되여

그 자리에 늘어졌다. 그런데 노루를 잡아 놓고 보니 뒤'일이 사실 걱정이였다.

한편 지휘부에서는 보초선에서 들려 오는 총소리를 듣고 적이 온 줄로만 알고 장막들을 한 쪽으로 걷우고 있었으며 녀성 동지들은 옥수수를 삶고 있던 대야들을 재빨리 걷우어 짐을 꾸리고 있었다. 소대장 강 위룡 동무는 보초선으로 뛰여 왔다. 소년 보초는 그냥 보초선에서 요지부동으로 서 있지 않는가!

《웬 일이야, 오발을 하였느냐?》

리 두익 동무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걸 잡았습니다.》

소대장은 옆에 쓰러져 있는 송아지만큼이나 큰 노루를 보고 그만 어이가 없어서 서 있었다.

노루는 사령부로 운반되였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사실의 전말을 들으시고 나서 얼굴에 웃음을 담으시였다. 그리고 리 두익 동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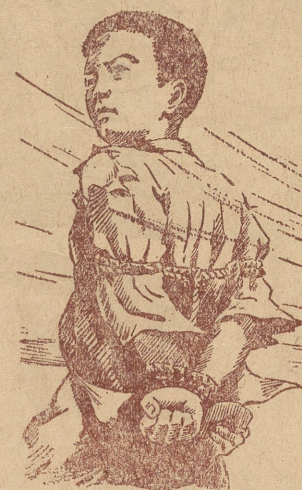
《네가 노루를 잡아서 여러 동무들과 함께 먹게 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사람을 위하여 결심한 바를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군사 규률을 위반 하였다. 그러므로 노루는 네가 잡았으니 노루 가죽은 너에게 주겠으나 규률을 지키지 않았으니 처벌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였다.

그는 일 평방메터 주위에 금을 그어 놓은 땅 우에 갇치였다. 약 한 시간 동안 자기의 동료인 백 학림 동무의 감시 밑에 《구금 생활》을 끝마친 다음 종이로 만든 모자를 쓰고 각 중대를 돌아 다니면서 군사 규률을 위반하였다는 자기 비판을 하였고 다시는 규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지였다.

계속되는 원쑤와의 전투 생활을 통하여 이 천진 란만한 소년들은 불요 불굴의 투사로 자랐다. 그들은 오직 승리만을 믿고 비관과 실망을 모르는 혁명적 락관주의자로 단련되여 갔다.

이 한 편의 글로서 조선 혁명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 소년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나는 단지 그 때의 소년 전투원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못지 않게 조국 해방 투쟁사상에 빛내인 업적이 하도 크고 자랑스러워서 오늘의 행복한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조금의 과장도 없는 이 한 편의 글을 전한다.

피의 일기

16세의 짧은 생애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고성 소년 빨찌산 한 영국은 영예로운 조선 소년단에서 자란 슬기로운 애국자였다.

미제 야수들에게 총살을 당하는 전날밤 한 영국은 항상 옥중에서도 애독하던 아동단원이였던 전 만금의 빛나는 생애를 쓴 “빨찌산의 딸„이란 책 속에 다음과 같은 피의 일기를 남겨 놓았다.

《…나는 래일이면 죽는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하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을 내 힘껏 한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영예로운 조선 소년단원이다. 비록 나는 죽으나 내가 한 적은 일은 영원히 조국의 번영과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다!》

꼬마 용해공의 실수

—평북 구장군 구장 고급 중학교 대에서—

최 옥 선　　　　그림 리 서 우

백 정남 동무가 이 학교 1분단에 새로 전학 해 온 때였다. 학교에서는 용선로, 야장간, 석회로 등을 만들면서 생산 실습을 위한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정남이가 전학해 온 1분단에서는 그때 용선로 만드는 일을 맡아하고 있었다.

정남이는 몹시 용선로 크루쇼크에 들어 가고 싶었다.

그러나 정남이는 생각해 보았다.

전학 증명서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신 선생님은 내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일만은 열성껏 한다는 것을 몰라 주실거야 그러니 어떻게 크루쇼크에 넣어 달라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몹시 서운하였다. 그러나 정남이는 어떤 일에서든지 모범을 보여 반드시 크루쇼크에 들어 가야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이런 때 용선로를 만드는 크루쇼크원들 앞에는 난관이 생겼다. 내화 벽돌을 구하지 못하여 용선로 건설이 중지되고 있다는 것이였다.

이것을 알게된 정남이는 그날 저녁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기관구 보일라공 아저씨를 찾아갔다.

정남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저씨는 《장차 나라의 훌륭한 기술자가 될 소년단원들이 공업의 왕인 철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요구하는 일이니 힘써 주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며 기특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이튿날이였다.

정남이는 학교에 들어서자 마자 《애들아 내화 벽돌을 구했다. 작년에 기관구 보일라를 수선하면서 뜯어낸 건데 우리 꼬마 용선로에는 넉넉히 쓸 수 있대》라고 소리쳤다. 이말을 들은 동무들은 모두 기뻐하며 내화 벽돌을 나르러 떠났다.

용선로 만드는 일은 다시 시작되였다. 용선로 크루쇼크원들 속에서는 《정남이는 열성 있는 애야》라고들 칭찬이 자자하였다.

용선로가 거의 완성되여갈 무렵이였다. 크루쇼크에서는 용선로 건설을 열성껏 도울 뿐만 아니라 크루쇼크에 들어오고 싶어 노력하고 있는 정남이를 크루쇼크원으로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크루쇼크원이 된 정남이는 용선로 만드는 일에서 힘든 일이면 항상 앞장 나섰다. 그는 제일 기술이 든다는 송풍구도 뚫었다.

크루쇼크원들 속에서는 정남이의 솜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 졌다. 그럴 때마다 정남이는 어깨가 으쓱 해지며 《성적이 좀 좋지 않다고 걱정할 건 없어, 그래도 제일 기술이 든다는 송풍구도 내가 뚫었는데 뭐》 하고 생각 했다.

드디여 용선로를 시험해 보는 날이 왔다.

크루쇼크원들은 파철, 석회석 등 원료들을 날라다가 용선로에 넣었다. 맨 나중에 정남이가 무연탄을 한짐 지고 씩씩거리며 달려왔다. 크루쇼크원들은 정남이를 둘러 싸고 무연탄은 열이 약하므로 쇠를 녹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약 20리 가량 떨어져 있는 탄광을 찾아 가서 비개탄을 구해 와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남이는 《일없어, 아궁에 때는 석탄'불에도 쇠줄이 잘만 녹드라, 이제 어떻게 비개탄을 가지러 간단 말이냐》라고 우겨 대면서 무연탄을 용선로에 퍼부었다.

크루쇼크원들은 정남이 때문에 헛수고하게 된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정남이는 《해봐야 알지, 해보지도 않구 어떻게 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손수 서둘러 용선로에 불을 피우고 스위치를 넣어 모타를 돌렸다. 후항 (바람채)은 소리를 내며 돌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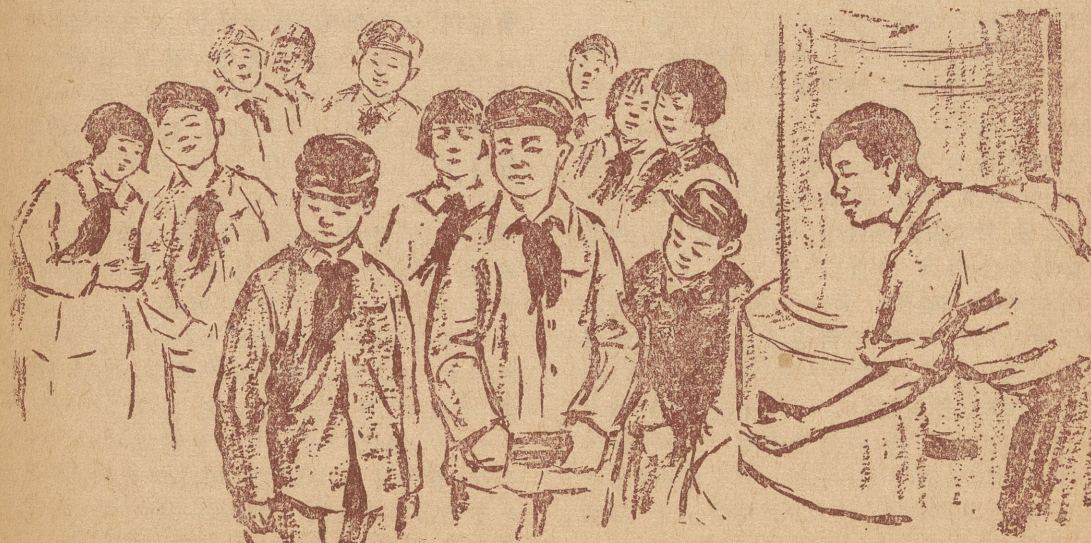
이윽고 용선로는 빨갛게 달기 시작하였다. 정남이는 신이나서

《자 보라, 용선로가 달기 시작한다.》 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쇠'물은 흘러 내리지 않았다. 용선로 안의 원료들은 빨간 불덩어리로 되기는 했으나 쇠'물은 녹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실패는 정남이의 고집 때문이야, 우리는 빨리 비개탄을 구해다가 넣어야 한다.》 동무들은 웅성웅성 떠들었다.

정남이는 말없이 서 있다가 비개탄을 구하러 떠나는 동무들의 뒤를 맥없이 따라 갔다.

첫 실패는 정남이를 괴롭게 하였다. 그런데 동무들이 비개탄을 구해다가 용선로에 다시 불'길을 올렸을 때도 쇠'물은 흘러 내리지 않았다. 물론 무연탄을 넣었을 때와는 달리 원료는 로 안에서 쇠'물로 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흘러 내리는 도중에 굳어져서 밖으로 흘러 나오지 못하

였다.

이때 정남이는 《보라 신통한게 있나, 석탄이야 마찬가지지》하고 말하였다.

크루쇼크원들은 야단났다고 떠들었다. 만일 쇠'물이 로 안에서 식어버리면 내화벽돌에 붙은 쇠붙이들을 전부 까내야 하였다. 쇠'물은 걷잡을 새없이 식어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용선로 준공식은 약속한 날자보다 오랜 시일이 연기되게 되였다.

용선로를 다시 수선하면 동무들은 정말 모를 일이라고들 하였다. 왜 쇠'물이 흘러 내리지 않았을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 부근 철공 생산 협동 조합 김 인현 아저씨를 모셔 왔다. 용선로를 이리저리 살피시던 아저씨는 쇠'물이 도중에서 식어버리는 원인은 통풍구를 정확하게 뚫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시였다.

4개의 통풍구는 60도 각도로 꼭 같이 뚫려져야 한다. 그래야 통풍구에서 내뿜는 바람이 쇠'물이 흐를 입구의 초점에서 일치되여 그 세찬 바람의 작용에 의하여 열이 높아지며 그 열에 의하여 쇠가 물처럼 녹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정남이가 뚫은 통풍구는 제멋대로 뚫려져서 바람이 초점에 집중 되지 못했기 때문에 쇠를 녹이지 못했다.

동무들은 모두 자신 있게 뚫는다고 마치와 정을 가지고 다니던 정남이를 바라보았다.

정남이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내화벽돌이 굳기 때문에 60도로 꼭 같이 맞추어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것도 겨우 뚫렀습니다.》라고 대답 하였다.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더니 《힘들다고 공식을 않지켜서야 되나, 그렇게 일하면 기술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였다。

아저씨는 이날 기술은 주먹치기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어디까지나 노력과 지식이 일치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선로의 통풍 장치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였다.

이날 정남이는 열성껏 일한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공부는 좀 덜해도 일만 하면 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주먹치기로 기술을 배우겠다고 생각해 온 어리석은 지난 날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정남이를 비롯한 크루쇼크원들은 이튿날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내로 통풍구를 고쳤다. 그리고 다시 용선로에 불,길을 올리고 스위치를 넣었다. 성공이였다.

쇠'물은 드디여 흘러 내렸다.

크루쇼크원들은 용선로에서 나오는 쇠'물로 처음 로쓰똘을 생산해 보게 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속 오작품이 나왔다.

정남이는 오작품이 나는 원인이 자기가 처음에 실수하던 것처럼 과학적인 준비없이 그저 주먹치기로 생산부터 시작한 탓이라고 생각 되였다.

그리하여 동기 휴가에는 누구보다도 공장 실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철 제품 생산에 대한 지식을 열성적으로 배우는 한편 학과 학습을 꾸준히 하여 반드시 훌륭한 꼬마 용해공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방학이 시작되던 첫날부터 크루쇼크원들과 함께 철공 생산 협동 조합에 나가서 열심히 실습하던 정남이는 드디여 학교에서 오작품을 낸 원인을 알아 내였다.

그것은 석탄, 철, 석회, 규소등 원료의 배합을 과학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이렇게 실습하면서 학습을 꾸준히 한 정남이는 방학 동안에 가마, 다리미, 가마판, 화로, 목선반 등을 자기 혼자서 만들어 낼 수 있게까지 되였다.

개학이 되는날 그는 자기가 실습에 참가하여 생산한 가마, 로스똘, 목선반 등을 학교에 선물로 가지고 왔다.

이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여러 동무들 앞에서 정남이를 칭찬하였다.

동무들은 모두 몰려와 정남이가 만든 제품을 보며 박수를 보내였다.

—안변군 오계 중학교 대에서—

신 진 균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온 운문이와 태협이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 앞을 다투며 토끼 산실로 달려 갔습니다.

그들은 먼저 새끼 낳은 어미토끼들과 이제 곧 새끼 낳을 토끼들에게 물도 주고 깃을 새로 깔아 주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 갔습니다.

어미토끼들은 모두가 여전히 건강하고 갓난 새끼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산실안의 모든 토끼들을 한바퀴 살피고 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맡아 기르는 토끼집 앞으로 다가 갔습니다.

《얘 이젠 새끼토끼들에게 젖을 먹이자구나》 하며 태협이는 새끼 낳은 어미토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운문이도 자기가 맡아 보는 어미토끼를 꺼내여 새끼들에게 골고루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들이 부질없는 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드니 그들이 맡아 기르는 어미토끼들은 이번에 한놈이 12~14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새끼들이 골고루 젖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그들은 매일 이렇게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들이 기른 어미토끼는 17마리의 새끼를 한번에 낳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자라던 새끼들이 사흘이 지나서부터 한두마리씩 죽어 갔습니다.

《웬 일일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끼들은 계속 일곱마리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누구보다도 아쉬워한 것은 운문이와 태협이였습니다.

그럴수 밖에 그들은 학교 가까이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토끼 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해 오던 동무들이니까요. 더욱이 이

새끼낳은 어미토끼들에게 물을 주고있는 김 갑묵 동무

토끼가 열 일곱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게한 것도 그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들을 토끼 사육 명수들이라고 부르게까지 되였던 것입니다.

태협이와 운문이는 너무도 안타까운 김에 어미토끼의 젖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미토끼에게는 젖꼭지가 열개 밖에 없었습니다.

《오라,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제야 그들은 일곱마리의 새끼가 죽은 까닭을 알게 되였습니다.

젖꼭지가 열개 밖에 없는 어미토끼에게 열 일곱마리의 새끼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약한 새끼들은 계속 젖을 먹지 못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된 때로부터 그들은 어미토끼들이 한번에 많은 새끼를 낳게 되면 모든 새끼들이 실수 없이 자랄 수 있게 이렇게 골고루 젖을 나누어 먹여 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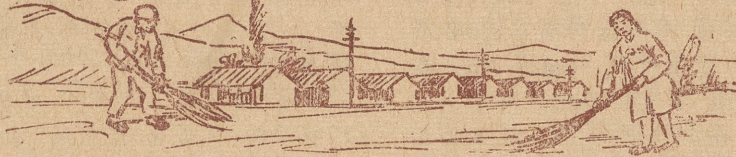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떻게 한번에 그렇게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게 했을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훌륭한 경험을 들려 줄 것을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태협이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동무가 토끼의 다산을 보장케 한 첫 명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운문이를 쳐다 보았습니다.

마을의 미화 사업을 도와 나섰다

봄철에 들어서면서 우리 분단 앞에는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농촌의 위생 문화 월간을 앞두고 봄철의 위생 사업을 잘 하는 문제가 아주 주요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분단에서는 봄칠의 위생 사업을 잘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우선 우리들 자신이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며 꼬마 위생 선전대를 조직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위생 지식을 해설하며 아침 저녁으로 마을의 청소 미화 사업에 다같이 힘써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이 있은 후 우리 분단 동무들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소년단 나팔 신호에 의해 모두 일어나서 달리기 아침 체조를 끝내고 마을을 깨끗이 쓸고 있습니다. 또 서로 위생 검열을 진행하여 잘못하는 동무들은 친절히 고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꼬마 위생 선전대는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왜 봄철에는 위생 사업을 더 잘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해설해 드리면서 일'손이 바쁜 어머니들을 도와 청소도 해 드리고 세탁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와 같은 로력의 결과 우리 분단 동무들은 개인 위생도 잘 지키고 옷차림도 단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 마을은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위생 사업을 더 잘하여 우리 마을이 공화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위생 마을로 되게 하렵니다.

황해남도 연안군 염전 중학교
1분단 박 용부

쳐다 보았습니다.

운문이는 곧 자기의 지난 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이였답니다. 학교에서는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들의 힘으로 새해에 5천만 마리의 토끼를 길러 내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게 되자 겨울철에도 계속 실수 없이 토끼들을 기르며 더 많은 새끼들을 내우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각 분단들에서는 토끼들을 더욱 정성껏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학교에는 겨울 한철 계속 새끼 낳을 토끼들을 위하여 밑바닥에 온돌을 깔고 실내 온도를 보장할 수 있는 토끼 산실이 마련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5분단 토끼 관리 책임자인 운문이는 인민 학교를 졸업한 후 한동안 협동 조합 가축반에서 일하던 때의 경험을 살려 토끼의 이종 교부 실험을 시작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합숙 경원 목장 양돈공 리 복순 로력 영웅 누나가 돼지의 다산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훌륭한 경험을 본받아 항상 주의 깊게 토끼들을 살피면서 발정기가 된 어미토끼들에게 빠짐 없이 이종 교부를 실시하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끼 낳을 때가 되면 곧 토끼 산실에 옮겨다 놓고 조심히 돌봐주군 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였습니다.

그가 8시간 간격을 두고 건강한 숫토끼 세마리와 교부시킨 어미토끼들은 모두 10마리~14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최고 17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운문이와 그의 분단 동무들은 그후 계속 토끼의 이종 교부를 실시하면서 새끼 낳은 어미토끼가 다시 곧 새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에서도 훌륭한 경험을 쌓게 되였습니다.

어미토끼들은 영양 상태가 좋기만 하면 새끼를 낳은 후 보통 하루 이틀만에 다시 발정하게 되며 그때가 지나가면 2주일 내지 3주일이 지나서야 다시 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새끼 가진 토끼의 건강에 항상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새끼 낳을 때까지 계속 영양분이 많은 썰로스에 건사료와 곡식 사료들을 잘 섞어 먹이군 하였습니다.

이렇게 돌봐 준 어미토끼들은 새끼를 낳은 후 곧 발정하게 되였고 그때마다 교부시킨 토끼는 틀림없이 또 새끼를 가지군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갓난 새끼에게 젖을 먹이면서 또 새끼를 가지게 되는 어미토끼는 얼마 가지 못하여 건강에 심한 해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살찐 어미토끼 몇놈을 골라 유모토끼를 따로 마련하고 새끼 낳은 어미토끼가 또 새끼를 가지게 되면 그 새끼들은 유모토끼에게 옮겨다 젖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모토끼가 좀처럼 옮겨온 새끼들에게 젖을 잘 먹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생각던 끝에 그들은 유모토끼의 오줌을 옮겨갈 새끼들의 털에 발르고 갖다 놓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모토끼는 자기의 오줌 냄새를 맡고서인지 먼저와는 달리 순순히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훌륭한 경험은 곧 각 분단들에 널리 보급되고 날이 갈수록 토끼 사육 명수들이 늘어가게 되였습니다.

나는 토끼 산실을 나와 다시 각 분단 토끼 우리에 가보았습니다.

어미 토끼들과 젖떨어진 새끼토끼들이 칸칸마다에 수 많이 들어 있는 토끼 우리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이 열심히 토끼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끼 토끼들에게 골고루 젖을 나누어 먹이고 있는 김 태협 동무

꼬마 발전소 시초

김 우 철

그림 한 윤석

물방아'간에서

두메 산'골 중학교
앞 시내'가에
화로'불 타 오른다
화로'불 타 오른다

배우며 일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활활 타오르는 화로'불,
꼬마 수력 발전소 건설장에
어제도 오늘도 타오르는 화로'불

구룡강 기슭에선 민청원들이
200 킬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우리는 여기서 5 킬로 꼬마 발전소
수차를 만들고 물'길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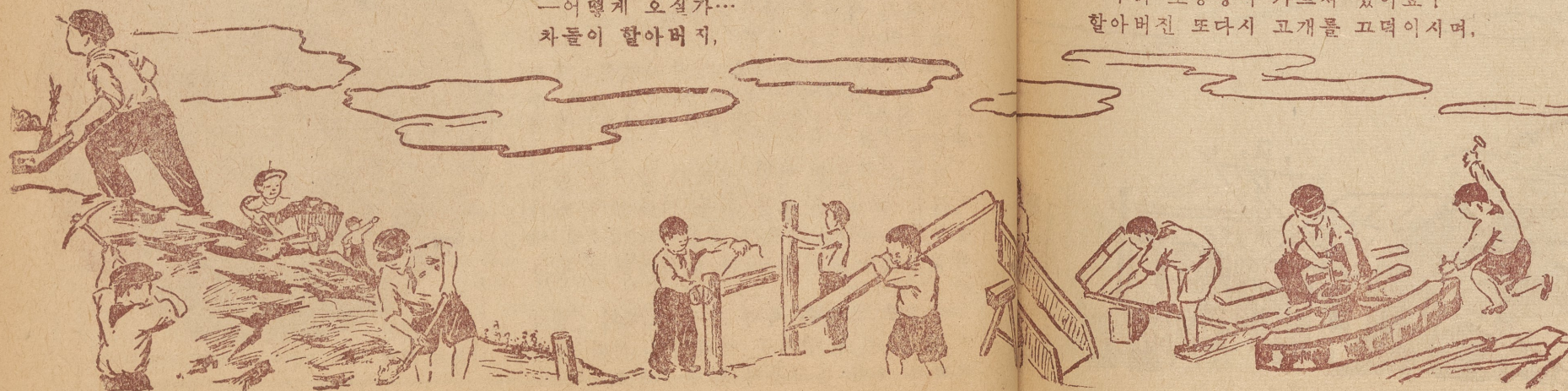
눈보라 일고 얼음이 얼면
물이 없어 수차를 못돌린다고
그래서 땡땡이를 부리던 동무야
물방아'간으로 우리 가보자

쿵쿵 내려 찧는 저 물 줄긴
얼음'장 밑으로 달려 온 내'물,
단야실에서 벼린 정으로
벼랑굽이 뚫어서 이끌어 온 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손으로
공작실에서 만든 저 수차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이 좋아서
쿵더쿵 노래하며 돌고 도누나.

광산 아저씨들 손수 보내 준
5 킬로 발전기 돌고 돌려라!
이제 교실에 마을엔 전등이 반짝
이제 우리들 눈에도 기쁨이 반짝

옛말 할아버지

호호백발 할아버지
지팽이 짚으시고
숨이 하늘에 닿아서
화로'불'가로 찾아 오신다.

—어떻게 오실가…
차돌이 할아버지,
옛말을 잘 하셔서
《옛말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앞뒤'산이 울리도록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할아버진
고개를 끄덕이시네.

—옛말을 또 들려 주세요!
—네? 할아버지,
—오냐! 이 고장 옛말을
어서 들어 보아라.

《…룡소가 무언지 너희들 아니?
룡이 미역 감던 늪이란 말이다.
그런 룡이 앞 강에 아홉 마리 있었지.
그래서 이름이 구룡강이란다.…

룡이 천년 묵으면 하늘에 오른대.
어느날 아홉 룡도 하늘에 올랐대
그래서 룡이 노하면 비'물을 뿌리여
강과 바다를 다스린단 이야기 있단다.》

그러자 아희들은 아하하… 웃는다.
배를 붙안고 굴러 가며 웃는다.
옛말이 재미나서 웃는 줄 아니.
너무나 어이없어 그래 웃었지.

—할아버지, 우리는 이제
밝고 밝은 불'빛을
할아버지 댁에도 보내 드릴 테야요
이제 한 달만 기다리세요,

—그래 이 일을 누가 시키냐?
—우리 로동당이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진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무렴, 로동당이 하는 일, 틀림이
없지.…

견학 온 동무들

고개 넘어 중학교 소년단원들은
꼬마 수력 발전소에 견학 왔구나.
자기네도 발전소 만들고 싶어
우리에게 물어 보려 찾아 왔단다.

건설대장이 누군가 묻기에
소년단 경례하고 내가 나섰지.
찾아 온 대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처음 안내한 곳은 우리들의 공작실.

때마침 크루쇼크원들
예비 수차를 만들고 있었네.
목공 솜씨에 놀라는 동무들,
내 어깨도 절로 으쓱해졌네.

단야실에 잠간 들려
우리 만든 정과 괭이도 보여 주고
다음으로 그들을 안
내한 곳은
우리의 자랑인 꼬마
세멘트 공장.

세멘트를 구어 내고
소석회도 만드는
우리들의 일 솜씨
바라 보더니
눈들이 번쩍, 빛나
겠지.

그 다음 우리는 올
타 갔단다.

내'물을 가로 막은 언제 우로.
—높이와 길이는?
—높이 5 메터, 길이 30메터.

그랬더니 모두들 손'벽 치더라.
골안이 울리도록 손'벽 치더라
그 뒤에도 자꾸만 물어 보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했지.

책에서만 배워서야 쓸모가 없지,
일하며 연구하며 배워 나가야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자라지.
당의 전사로 훌륭히 자라지.

그러자 대 위원장
많은 것 배웠노라 손을 내미네.
그 손을 흔들며 나도 말했다.
우리도 배우려 찾아 가마고…

눈보라를 헤치고

토끼도 빠져서 오금 못 쓰는
깊은 눈 속, 눈보라를 헤치고
소년단 썰매 산을 내린다.
소발구도 뒤따라 산을 내린다.

썰매 우엔 장작을 싣고
소발구엔 전주'감 락엽송 싣고
《유격대 행진곡》 노래 부르며
눈보라 헤치고 산을 내린다.

발전실에서 교실에까지
엊그제는 다섯 대 전주를 세우고
오늘은 다시 마을에 세울
전주 아홉 대를 실어 내린다.

털 모자를 푹 내려 썼지만
눈가루는 뿌린다, 얼굴과 목에…
대한 추위 칼바람에 숨이 막혀도
가슴에 들린 아동단원들의 뜨거
운 숨소리.

락타봉 허리를 타고 넘으니
눈 아래 보이누나, 우리 마을이…
전주를 세우고 줄만 늘이면
다정한 고향에 불꽃이 피겠지.

그러면 호랑이도 달아날 거야,
메'돼지도 겁을 먹고 돌아 설거야.
옛말 할아버지도 그 불을 보시면
새로운 전설로 꽃을 피우실 거야.

휘황한 불'빛

로동이란 참으로 위대하구나.
첫 스위치 누르니
우리 학교 교실들에
전등이 켜졌네,

교실에만 켜졌나?
선전실도 켜졌지.
선전실만 꽃폈나?
집집에도 꽃폈지.

민주 선전실에 찾아 오신
옛말 할아버지
두 눈이 휘둥그레
어쩔 줄을 몰으시네.

방안에만 켜졌나?
외등도 켜졌지.
외등만 켜졌나?
라디오도 켜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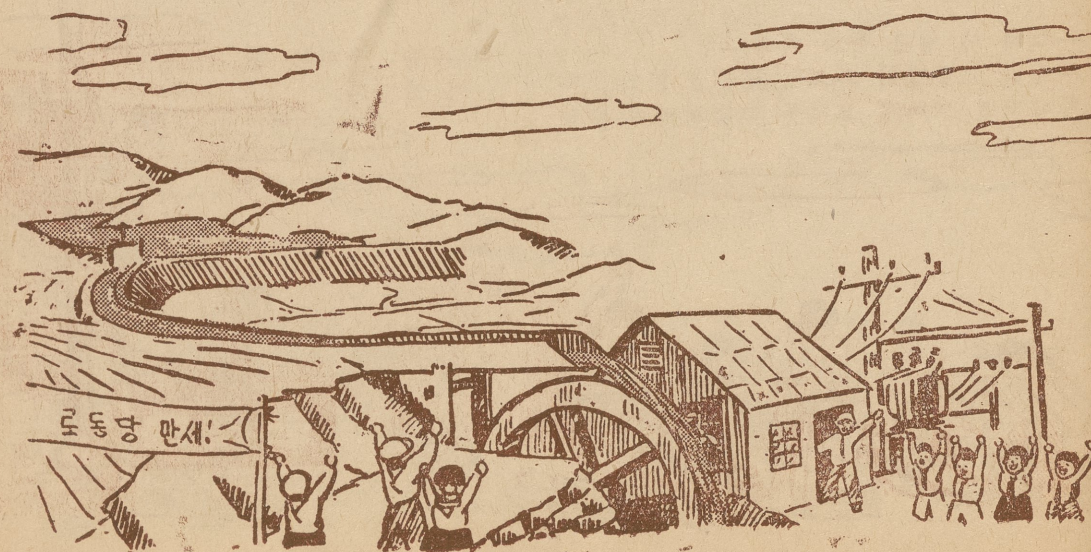
라디오로 들려오는
아름다운 평양 노래,
모두들 귀를 기울이는데
보아라, 할아버진 어깨춤 들썩궁.

라디오만 들리나?
탈곡기도 돌리지.
탈곡기만 돌리나?
물도 퍼 올린단다.

이때 우리는 차렷하고
김 일성 원수님 초상 앞에 나란이,
소년단 경례 높이 아뢰고
김 일성 장군의 노래 불렀다.

휘황한 불'빛을 누가 줬나?
로동당이 주었지.
경애하는 우리 수령
원수님이 주셨지.

—동창군 표마 수력 발전소에서—

(1959. 1)

재일 조선 소년들을 맞기 위한 준비

어느날 방과 후였습니다. 우리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으로부터 조국에 돌아올 재일 조선 동포들을 맞기 위하여 채택한 내각 결정 16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동안 미제와 일본 기시 정부의 갖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오직 조국에 돌아 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오던 재일 조선 동포들이 드디여 공화국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머지않아 조국에 돌아 오게 된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내각 전원 회의가 조국에 돌아올 재일 조선 동포들의 모든 생활을 보살펴 주기 위하여 영접 위원회를 조직하고 하루 속히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돌린데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도꾜에서 가난하게 사는 조선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부모들과 함께 조국에 돌아올 우리의 어린 벗들을 언제나 맞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문평 제련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에 돌아 올 우리의 아버지 형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곳 제련소에서 일할 것을 희망하고 찾아 오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우리의 동무들을 새로 맞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많은 동무들을 맞기 위하여 각 분단별로 그 준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분단 동무들은 벌써 어느때 그들이 오던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훌륭히 갖추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분단 모임을 통하여 그들의 학습을 도와 줄데 대한 분공도 이미 다 조직 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힘들어할 국어와 문법, 력사, 로어들에 대해서는 분단 열성자들이 한 과목씩 맡아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동무들은 그들이 우리의 생활에 빨리 익숙해 지도록 그들을 잘 도와주며 소년단 생활에도 빨리 참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방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모든 분단들에서는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에서 진행되는 파철 회수 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하여 앞으로 그들에게 선물할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에 돌아올 우리의 동무들이 하루 속히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문천 제 2중학교 대
대 위원장 리 영재

강철소년 소 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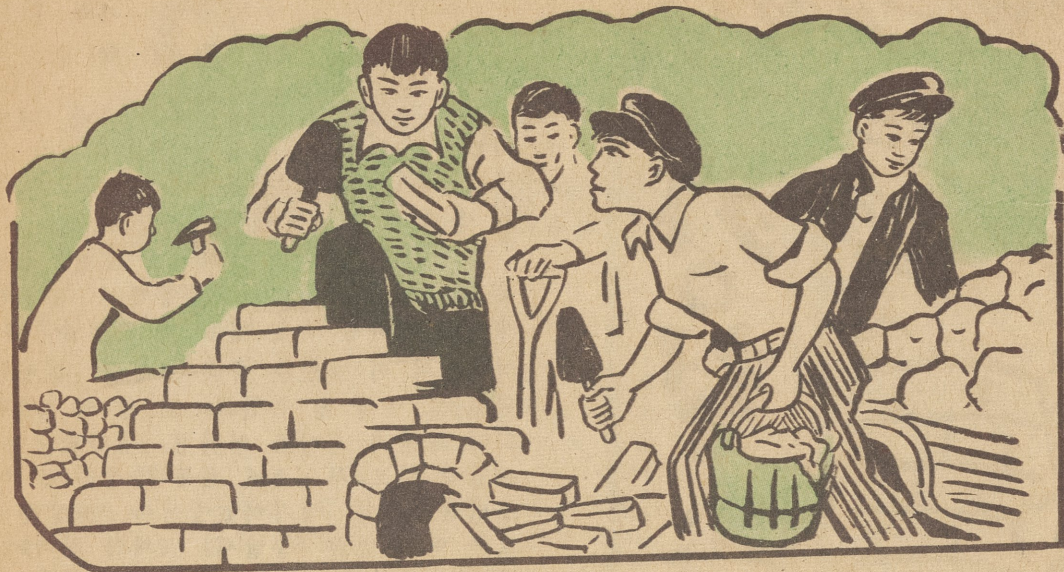
장 기 현 역

중국 은평현 대회 인민공사 사란 대대에 한 소년 선봉대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 홍장이라 부르고, 나이는 올에 열 세살입니다.

홍장 소년은 일찌기 사용해 오던 도구를 편리하게 개혁하는 운동에서 간편한 수차와 베아링 축을 만든 바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소년은 중국 공산당 은평현 위원회, 공청 현 위원회, 및 향 당 위원회의 표창과 상장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남방 일보》와 《소년 선봉대》잡지도 이 소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소년을 《종달새》 《재간 덩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전에 홍장 소년은 또 다시 5명의 소년 선봉대원들과 함께 꼬마 용광로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홍장 소년이 철을 뽑는데 성공 하였고, 또 그의 성격이 강철 같이 굳세다 하여 지금은 《강철 소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0월 초순 인민 공사에서 6개의 용광로를 건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보게된 소 홍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홍장 소년은 소 명신, 리 요화, 리모, 리 유문, 리 유광등 다섯 소년을 찾아 가서《어른들이 강철을 뽑으면 우리도 강철을 뽑을 수 있지 않니, 모 주석 께서는 강철과 식량은 두 가지 보배라고 말씀 하셨다. 우리는 모 주석에게 이 두가지를 꼭 선물하자!》고 하니 소년들은 좋아서 기뻐 날뛰였습니다. 용광로의 이름은 《사란 꼬마 용광로》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 홍장은 조장으로 선거 되였습니다. 소 홍장을 비롯한 다섯 소년이 용광로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자 《쇠'물을 뽑는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코 흘리개들이 뭘 안다고…》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광로의 불'꽃이 너희들의 눈섭을 당장 태워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 되지나 않을가 걱정하여 용광로 만드

는 일을 굳이 말리였습니다. 그러나 소 홍장은 〈총 알이 무서워 싸움 판에 못가고 불에 타 죽을까바 철을 만들지 못할가〉라고 생각하며 비웃음도, 위협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홍장 소년은 강철부대 대대장 소 련대 아저씨에게 찾아 가서 부모들이 소년들을 도와 주도록 방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 하였습니다. 대대장은 소년들의 이렇듯 지극한 열성에 감탄하여 이들의 청을 쾌히 승락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쇠'물을 뽑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또 강철부대 아저씨들이 너희들을 도와 줄 것이야》라고 고무하여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이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원료와 기술면에서 많은 애로에 부딪치게 되였습니다.

낡은 벽돌'장은 얻어 왔으나 용광로를 쌓을 도구가 없었습니다. 소 홍장은 손으로 흙손을 대신하고 굳은 나무를 깎아 삽을 대신하여 용광로를 쌓을 자리를 깊이 팠습니다. 송풍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낡은 판자 쪼박을 주어다가 농기계 공장 기술자 아저씨들의 도움을 받아 《풀무》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큰 걱정꺼리는 인민 공사에서 실어 온 철광석은 너무 덩지가 커서 용광로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돌을 마치 대신으로 써 가며 광석을 깨뜨렸습니다. 연료는 나탄을 캐여다가 석탄 덩이 처럼 비저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곤난은 아직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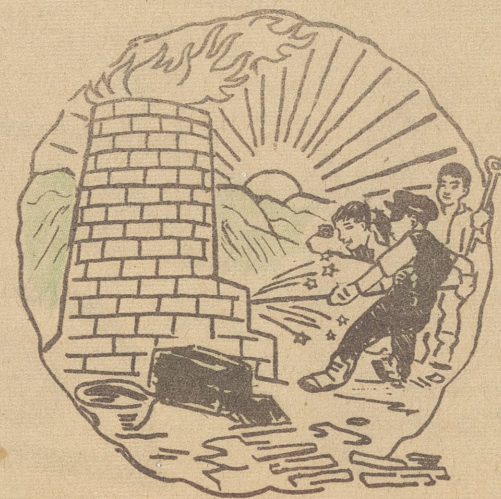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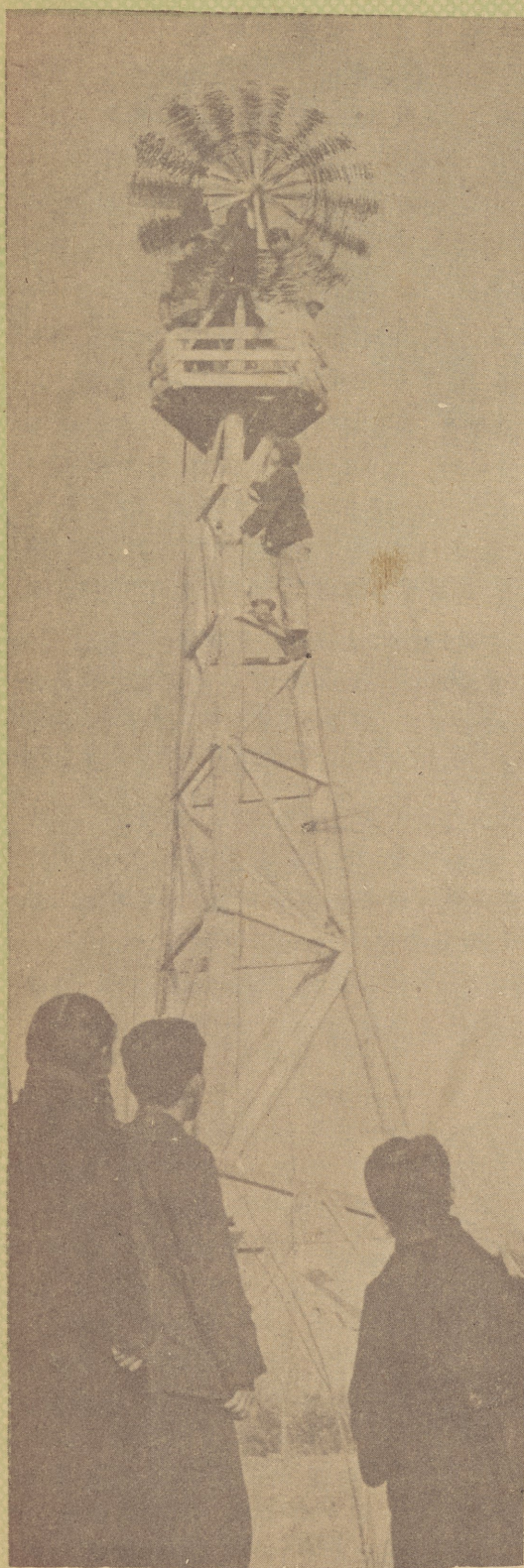
그들이 용광로에서 첫 쇠'물을 뽑는 날이 였습니다. 그런데 철은 녹지도 않고 덩어리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락심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재를 모두 끌어 내고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반 나절, 하루가 지나 갔습니다. 쇠'덩이는 완전히 녹을대신 더 엉켜 쇠'물이 흘러 나올 구멍을 꽉 틀어 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할수 없이 불을 끄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소년들은 곧 강철 부대 대대장 소련대 아저씨를 모셔다가 회의를 열고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은 용광로 밑은 습기가 많은데다 로의 벽돌을 엷게 쌓았기 때문에 로의 온도를 보장 할수가 없었고 또 로의 내화 벽돌이 너무 무드러 졌기 때문에 로가 터지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된 소년들은 재빨리 처음 세웠든 로를 허물고 이번엔 습기가 없는 마른 땅에 새로 용광로를 쌓고 로 안에다가 온도를 보장하는 시설까지 가추었습니다. 다른 한편 소 홍장은 직접 공사 강철 대대 아저씨들이 일하는 용광로에서 경험 많은 기술자들로부터 원로배합, 광석 넣는 법, 풀무 질, 광재를 내는 법, 등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리하여 소 홍장의 기술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쇠'물을 뽑을 때 홍장 소년은 붕장'대로 불 가운데를 뚫어 석탄을 넣고 좌 우로 뚜지니 이글거리는 시'벌건 쇠'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섰던 대대장은 아주 만족하여 《참 훌륭한 애다! 너는 용광로의 꼬마 기사가 될만 해》하며 홍장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때 동산에서는 아침 해가 천천히 떠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마루로 부터 온 누리에 붉은 해'살이 퍼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꼬마 용광로에서는 쇠'물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소 홍장은 동무들과 함께 이틀 밤을 꼬박 새웠건만 그들의 정신은 오히려 또랑또랑 하였고 마음은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고 재와 먼지가 가득 묻은 얼굴을 닦으며 동무들에게 《애들아 이러구 보니 난 소포공 같네》라고 하자 한 바탕 웃음 판이 벌어졌습니다. 웃음소리 가운데 소 홍장은 붕장'대로 로 문을 한쪽으로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벌건 쇠'물이 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쇠'물이다! 쇠'물이 흐른다! 이젠 뜨락또르 제작도 문제 없게 되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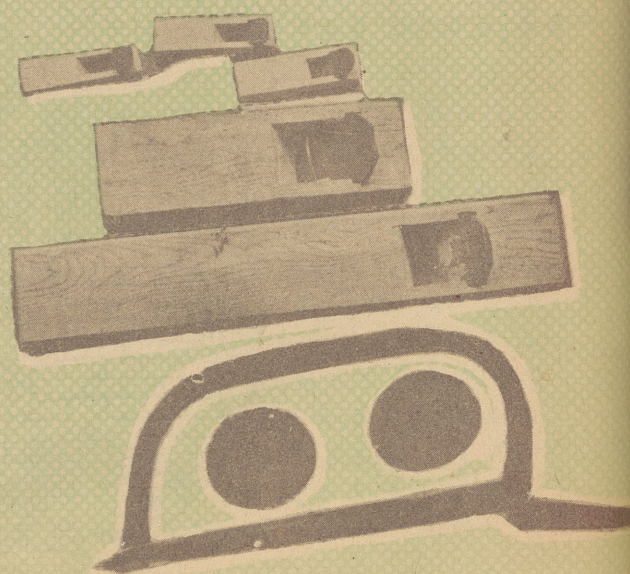
모두들 흥분과 기쁨에 넘쳐 이렇게 웨쳤습니다. 로 곁에서는 떠나 갈듯한 박수갈채가 일어났습니다. 해'빛과 쇠'물은 한데 엉켜 웃음 띤 소년들의 애티있는 얼굴을 비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 지자 순식 간에 로 둘레는 구경'군들로 가득 찼습니다. 꼬마들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쇠'물을 뽑는 기술까지 배운것을 못내 기뻐 하였습니다. 소 홍장은 모인 사람들에게 《연구만 한다면 못해낼 일 이라군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대장 소 련대 아저씨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작업은 바로 쇠도 만들어 내고 사람도 단련 시키는 훌륭한 일 이야!》.

우리들의 전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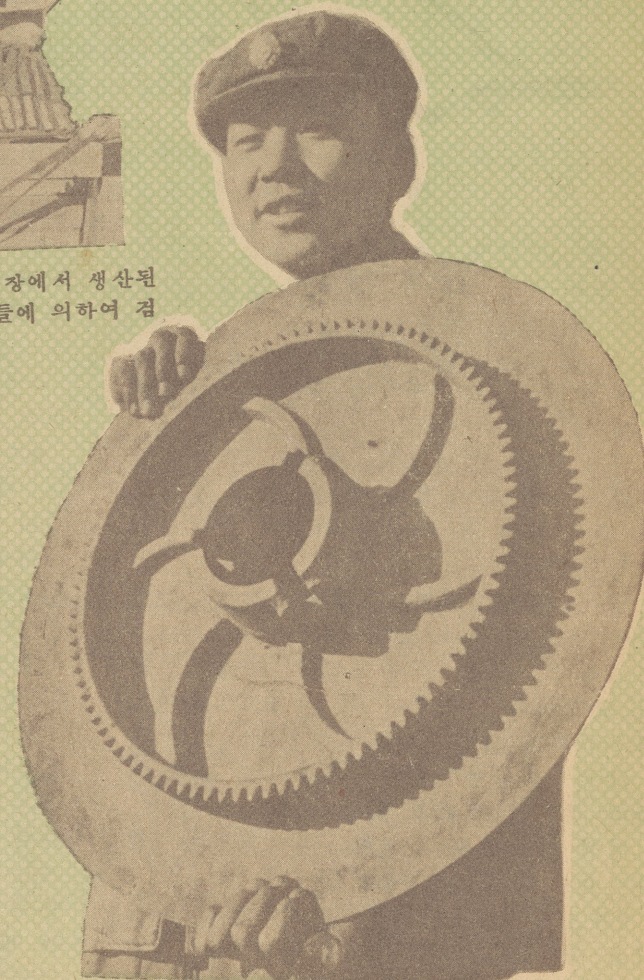
지금 공화국 각지 소년단원들은 꾸준히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 나가면서 훌륭한 제품들을 수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물건들은 모두 소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1. 완공에 가까운 쁘마 풍력 발전기는 평양 제 41중 학교 물리 크루쇼크원들의 훌륭한 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 이 훌륭한 고성기는 안변 오계 중학교 대 2분단 전 성희 동무가 만든 것입니다.

이 학교 1분단 장 화찬 동무가 만든 만도링은 어떤 노래든지 탈 수 있습니다.

3. 남포 제 4중 학교 대 쁘마 공장에서는 목제품, 철공품 등 수 10종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4. 남포 고중 초급반 동무들은 각종 완구들과 공구들을 수 많이 만들었습니다.

5. 리원 제 8중 학교 공구 공장에서 진행되는 목선반 작업입니다.

6. 리원 제 8중 학교 공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쁘마 제품 검사원들에 의하여 검열되고 진열됩니다.

7. 평양 제 11중학교 1분단 동무들은 복잡하고 힘든 방직 기계 륜전 치차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새'골에 날아든 흰새

김 재 원

그림 현 재 덕

온갖 새들이 모여서 한 집안 식구처럼 힘을 모아 일하며 즐겁게 살아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을 새'골이라고 부르지요.

새'골에 사는 새들은 모두 부지런들 하답니다.

아침에는 해'님보다 먼저 깨여나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며 먹을 것도 날라오고 집도 짓고 온 동리를 깨끗이 꾸리기도 한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새'골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되여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은 일에 더욱 성수가 났습니다. 누구나 더 많이 일하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늙은 부엉이 할아버지까지도 젊은 새들께 지지 않을려고 하는 판입니다.

벌써 몇 번째 부엉이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제발 인젠 나도 일을 좀 시켜 주게나, 내 나이는 좀 늙었네만 일자들에게 질줄 아나》

이 말을 들은 젊은 새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아니, 부엉이 할아버지, 지금 맡아서 하는 일은 잊으셨나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의 백배 천배에 해당하는 게 아냐요》

《정말 부엉이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우리 새'골의 밤은 무시무시 할거예요.》

《그저 우리 부엉이 할아버지가 밤마다 새'골을 지켜 주니 우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지내게 되죠.》

사실 이 산'골에서 제일 나이 많은 부엉이 할아버지가 맡아서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엉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새'골의 밤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낮에 곤하게들 일하고 잠자는 새들을 혹 나쁜 놈의 짐승들이 해치려 오지나 않나, 또 그득그득 쌓아 놓은 량식을 도적하려 오는 놈이 없나 하고 부엉이 할아버지는 뜬눈으로 밤을 새군 한답니다. 부엉이 할아버지는 비오는 밤이나 눈보라치는 밤이나 하루도 그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 새'골에는 아무런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이 새'골의 모든 새들은 부엉이 할아버지를 여간 존경하고 따르는게 아니랍니다.

그래도 부엉이 할아버지에게는 요즘 젊은 새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낮에는 자고 밤에만 동네를 지키는 제 일이 부족하게만 생각되였습니다.

그래서 또 청을 해 봤는데 젊은 새들은 들어 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엉이 할아버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후부터 부엉이 할아버지는 동네를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나섰습니다.

해만 지면 부엉이 할아버지는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온 새'골을 골고루 살피며 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엉부엉》 시간도 알려 주군 한답니다.

모든 새들은 그 소리를 노래처럼 들으며 평화롭게 잠자군 하지요.

이렇게 평화롭고 화목한 새'골에 사는 새들 가운데 말썽꾸러기가 꼭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엉뚱이》라고 불리우는 꿩이였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잘한대서 그렇게 이름 지은 거랍니다. 《엉뚱이》는 때때로 일하다 힘이 좀 들면 엉뚱한 말을 하군 했습니다.

《이 새'골에선 내가 제일 손해란 말야, 그래 누가 몸'집이 나만한가? 몸'집이 제일 큰 탓에 나는 남보다 일을 몇 갑절이나 더 하거든, 정말 피끌새 같은 건 내게 비하면 있으나 마나 허지.》

이런 말을 들은 여느 새들은 《엉뚱이》를 핀잔 주군 했습니다.

《그러게 엉뚱인 제일 많이 먹지 않니. 피끌새는 피끌새만큼 먹고…》

사실 꿩에겐 먹을 것도 많이 나눠 주었고 집도 커다랗게 지어 주었답니다.

그래도 《엉뚱이》는 제가 힘들여 일한 것만큼 값을 못 받는 것 같이만 여겨졌습니다.

《조꼬만 새들에게 끼워 몸집이 커다란 내가 힘들게 일할게 뭐람, 그러면 나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한 《엉뚱이》는 점점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엉뚱이》는 꾀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무 새들은 《엉뚱이》가 정말로 앓는 줄 알고 짬짬이 찾아 와 문안을 했습니다.

그런때마다 《엉뚱이》는 죽는 시늉을 하며 말하군 했습니다.

《아이구 머리, 다리, 허리야… 아이구 난 너무 무리하게 일한 것 같애,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애…》

그래서 여느 새들은 《엉뚱이》를 좀 헐한 일'자리로 옮겨 주자고 의논하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꾀병을 하며 자리에 누워 이것저것 헐하게 살아 갈 꾀를 궁리하던 《엉뚱이》는 선뜻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해해… 무슨 일을 하는게 좋겠느냐구… 글쎄 몸이 좀 약해졌다구 놀고야 있겠나, 난 저 부엉이 령감이 하는 따위 일이면 자신이 있겠는데…》

이 말을 들은 여느 새들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더 힘들고 무거운 일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엉뚱이》에게는 남들이 일하는 낮에는 마음껏 자고 밤에만 슬슬 돌아다니는 일이 아주 헐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딴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엉뚱이》는 부엉이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낮에 마음대로 잘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 대신 해만 지면 온 동네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호호… 인제는 팔자를 고쳤어. 낮에는 쿨쿨 자고 밤에도 나무 가지에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엉뚱이》는 속으로 여간 기뻐한게 아니랍니다.

×

온 세상이 다 깊이 잠든 재밤'중입니다.

낮 동안은 그렇게도 분주하던 새'골은 죽은 듯 고요합니다.

이따금씩 불어 오는 바람이 쏴—하고 나무 가지를 흔들어 놓군 할 뿐입니다.

늙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엉뚱이》는 새'골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 갈수록 《엉뚱이》는 점점 무섬증이 나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바위도 갑자기 큰 짐승으로 변하여 이리로 찌근찌근 다가 오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바람이 쏴 할 때마다 무슨 흉악한 새들이 새'골에 날아 드는 것만 같아 《엉뚱이》는 목을 움추리고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따위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걸…》

《엉뚱이》는 제 꾀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날이나 새였으면…》 하고 《엉뚱이》가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엉뚱이》가 앉아 있는 앞 늙은 도토리 나무 가지에 무엇이 《와사삭》 소리를 내며 와 앉았습니다.

《엉뚱이》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쫙 내 돋았습니다.

엇결에 도토리 나무를 쳐다보았더니 몸'집이 하얗고 꼬리가 길다란 무슨 새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오늘밤 새'골엔 큰 변이 일어 날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엉뚱이》는 숨'소리를 죽이고 소나무에서 발랑발랑 땅으로 기어 내려 갔습니다.

이 소나무에는 길게 늘이운 다래넝쿨이 있었습니다. 밤'중 새'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비상 넝쿨을 잡아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새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게 알려지고 속히 다른 새네 집에도 쫙 전달된답니다.

그러나 《엉뚱이》는 겁에 질려 손이 내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다간 그 흉한 새가 덥썩 덜미를 잡을 것만 같이 생각되였습니다.

《엉뚱이》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여 그 흉한 새를 올려다 봤습니다.

무슨 놈의 새인지 커다란 외눈깔이 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깔이 범의 눈깔보다도 더 크지를 않겠습니까.

《엉뚱이》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비상 넝쿨을 흔들다간 당장 잡혀 먹히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몇 걸음 뒤'걸음질을 하다가 살살 기여서 내 빼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살고 봐야지》. 《엉뚱이》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는 제 집에 들려 부랴부랴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엉뚱이》가 있는 힘을 다해 내빼고 있는데 맞은 편에서 부엉이 할아버지가 슬금슬금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가? 근데 자넨 경비는 안보고 보따리를 지고 어디를 가는건가 응》

부엉이 할아버지는 큰 눈을 더욱 크게 부릅뜨고 《엉뚱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디구 뭐구, 이걸 노슈, 큰일 났수다 큰일 났어요. 글쎄, 매보다 더 무서운 새가 새'골에 날아 들어 왔어요. 아이구 무서워…》

《영뚱이》는 와들와들 떨면서 제가 본대로 부엉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한시 바삐 동네 새들에게 알려야지 이렇게 혼자만 달아 빼서야 어떻거겠나》 부엉이 할아버지는 《영뚱이》께서 보따리를 빼앗으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알리긴 언제 알린다고 그러슈, 몽땅 죽습니다 몽땅 죽어요》

《영뚱이》는 겁에 질려서 어절줄을 모릅니다.

《에끼, 못된놈 같으니》

부엉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한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영뚱이》에게 일을 맡기였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돌보러 나왔던 길입니다.

《어서 나와 함께 동네 새들께 알리자 어서…》 부엉이 할아버지가 서두는 바람에 《영뚱이》는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어서 날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하며 부엉이 할아버지는 대담하게 큰 기침을 두 서너번 짓는 것이였습니다.

《이크! 이러다간 큰 변을 만나겠다》

《영뚱이》는 그기침 소리를 하얀 새가 듣고 이리로 와락 달려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걸음 뺑소니를 치다가 어느 바위틈에 머리만 틀어 박고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부엉이 할아버지는 우선 때꾸기네 집부터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늙은 도토리 나무 결으로 살금살금 가 봤습니다.

잠시 후에 때꾸기의 비상 신호에 의해서 새'골의 온갖 새들은 모두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그런데 늙은 도토리 나무곁에 다가간 부엉이 할아버지는 잠시 후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하…겁쟁이 같은 녀석, 저게 무슨 새타고…》

부엉이 할아버지가 올려다 보니 도토리 나무 가지에는 어린이들이 만든 커다란 연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띄우던 실이 끊어져서 여기까지 날려온 모양입니다.

《영뚱이》가 눈이 이글거린다고 본것은 연의 배꼽을 통해 달을 올려다 본 것이겠지요.

잠시 후에 새'골의 모든 새들은 늙은 도토리 나무 밑에 모여서 《영뚱이》가 보따리를 꿍지여 가지고 내빼던 이야기를 하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바위틈에 머리를 틀어 박고 떨던 《영뚱이》는 새들의 말을 듣고 막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실렁어실렁 기여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밤새껏 바위 밑에서 《영뚱이》는 제가 지내 온 일을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람… 모든게 내 게으른 탓이였어, 남의 하는 일은 그저 쉽게만 생각해 온 내가 어리석었어…》

이튿날 새벽이였습니다.

여느때나 다름없이 모든 새들이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며 일하러 떠날려는 데 《영뚱이》가 머리를 푹 숙이고 찾아 왔습니다.

《나도 인제부터는 동무들께 지지않게 열심히 일하며 살테야…》

《영뚱이》의 결심을 듣고 뭇새들은 매우 기뻐들 했습니다.

그래서 새'골의 밤을 지키는 일은 또다시 부엉이 할아버지가 맡아서 하게 되였습니다.

자연을 길들인 미츄린 할아버지

송 하 근　　　그림 홍 관순

로씨야의 이름난 과학자이며 자연 개조자인 이. 웨. 미츄린은 지금부터 105년전 짜리 시대에 어떤 산림 과수원의 오막살이 집에서 탄생하였다.

미츄린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과수 재배가였다. 어린 미츄린은 항상 자기 고향, 산천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는 과수원에서 아버지와 같이 과수 나무를 돌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수 나무를 재배하는 기술을 배웠다.

미츄린은 어린 시절부터 식물의 생활의 비밀을 탐구하며 식물을 더 좋게 길들이려고 하는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로씨야 중부 지방에는 사과나 배와 같은 과수—장과 식물들의 종류가 아주 적고 그 품질도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항상 새것을 만들어 내려는 욕망에 불타던 미츄린은 이 지방에 알맞는 좋은 과수들을 길들여 낼 것을 결심하였다.

로씨야 중부 지대에는 《끼따이까》라고 부르는 사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앵두보다 조곰 더 클 정도였다. 게다가 나무도 작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가늘고 꼬불꼬불하게 자랐다. 그러나 이 사과는 금'빛 붉은 광채가 도는 아름다운 것이였고 또한 겨울 추위에도 잘 견디였다. 미츄린은 어려서부터 이 사과를 몹시 사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이 쓸모 없는 사과 나무를 과수원에 심은 미츄린을 비웃었다.

그러나 겸손한 미츄린은 그저 《두고 보십시오》 하고 말할 뿐이였다. 그는 꾸준하게 《끼따이까》나무에 크고 맛 있는 사과 열매가 맺게할 연구를 계속하였다. 드디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한 개의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였다. 미츄린은 꿀벌이나 나비가 이 꽃송이에서 저 꽃송이로 날아 다니면서 화분을 옮겨 놓듯이 크고도 맛 좋은 다른 나무의 화분을 모아서 《끼따이까》에 발라 주어 열매가 맺히도록 할 것을 생각해 냈다. 그는 곧 좋은 사과 나무가 자라는 남방의 여러 과수원에 편지를 내여 많은 좋은 화분을 모으게 되였다. 미츄린은 이 화분들을 받자 곧 붓으로 《끼따이까》꽃의 주두에 발라 주었다.

그리고 꿀벌이나 나비가 오지 못하게 주머니를 씌워 두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괴상한 일이였다. 가을이 되자 주머니 속에는 사과가 맺히였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볼 때 그전의 《끼따이까》사과와 별 다른 점이 없을 뿐더러 도리여 작았다. 그러나 연구심이 많고 의지가 강한 미츄린은 실망하지 않았으며 그 사과에서 씨를 받아 두었다가 다음 해 봄에 심었다. 몇 해 후에 이 씨에서 자라난 사과 나무에 꽃이 피게 되였다. 미츄린은 이 꽃을 몹시 조심스럽게 거두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을을 기다렸다. 그러나 가을에 가서 열린 열매는 역시 작고 맛이 없었다.

침착하고 인내성이 강한 미츄린은 무슨

일이나 단번에 쉽게 성공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락심하지 않고 계속 정성들여 이 사과나무를 가꾸었다. 해가 지나감에 따라 이 나무에는 점점 크고 맛이 있는 사과가 맺히게 되였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곤난과 실패와 시련을 거친 후 깐질—끼따이까, 벨프로르—끼따이까와 같은 좋은 새 사과 품종들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자연 개조자인 미츄린은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키워내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특징들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과실 나무를 만드는 데도 성공하였다. 미츄린의 과수원에는 《600 그람 안또노브까》라고 불리우는 특별히 열매가 큰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는 이 사과씨를 받아서 심고 싹이 튼 다음 그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과수원에 옮겨 심었다.

어떤 날 그는 이 《600 그람 안또노브까》의 어린 묘목에서 몇 개의 눈을 베여다 세 살이된 돌'배나무에 접하여 놓았다. 《600 그람 안또노브까》의 눈은 돌'배나무 우에서 잘 자랐으나 대목인 돌'배나무는 병이 생겨서 썩기 시작하였다. 이 사과나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미츄린은 곧 사과나무와 돌'배나무 가지를 접한 부분을 구부려서 땅에 닿게 해 놓고 그 사과 나무 가지에서 뿌리가 생겨 나도록 하였다. 뿌리가 생겨난 후 돌'배나무를 잘라 버렸다. 이렇게 외따로 절로 자라난 이 사과나무는 마치 작은 사시나무 비슷하였다. 그래서 미츄린은 이 나무를 《끄마나무》라고 불렀다. 이 《끄마나무》에는 5년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는 모양과 빛갈과 그 맛이 배와 같은 사과였다. 이것은 미츄린을 몹시 기쁘게 하였다. 미츄린은 이것을 사과와 배의 잡종이라는 뜻으로 《라에 보거메》라 불렀다. 그 후 미츄린은 계속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과를 여러 가지 배와 접목하여 많은 새 품종을 만들어 내였다.

이것은 반동적인 생물학에 타격을 주고 선진적인 생물학의 발전에 새 길을 열어 주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반동적인 학자들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모두 맨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츄린은 우에서 말한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 내였기 때문에 반동 학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미츄린은 원예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과학자였다.

미츄린의 과수원에는 과실 나무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거기에는 개나리꽃, 수선화, 서양란초, 장미꽃 등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었다. 미츄린은 특히 장미꽃을 좋아 하였다. 그는 꽃이 크고도 아름다우며 많이 피는 장미꽃을 키워 내려고 애썼다. 그래서 미츄린은 여러 가지 장미꽃의 꽃송이에서 화분을 받아 다른 장미꽃의 꽃송이에 옮겨 놓았다.

동무들은 그림을 그릴 때에 붉은 색과 노란색을 한데 섞으면 감색으로 되고 붉은 색과 람색을 한데 섞으면 보라색으로 되며 또 분홍색에 람색을 조금 섞으면 자홍색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츄린도 역시 이 방법에 근거하여 장미꽃의 색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노란 장미꽃에 붉은 장미꽃을 교배시키고 그 씨를 받아 감색의 장미꽃을 새로 키워 냈고 흰 장미꽃과 감색 장미꽃을 교배시켜 유황색 장미꽃을 키워냈다.

미츄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꽃들은 인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미츄린은 사과, 배, 오얏 같은 실과 나무만 아니라 산과 들, 가는 곳마다에 자라는 들앵두와 마가목 같은 야생 나무들도 개조하여 사람에게 필요한 열매가 맺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츄린은 로씨야 인민들을 위하여 수 많은 새롭고 질 좋은 과수들과 꽃들을 길들였으며 로씨야 인민들에게서 열렬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미츄린의 이름은 로씨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졌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미츄린을 찾아 왔으며 과실 나무들을 팔아 줄 것을 희망하였다. 어떤 카나다 장사'군은 미츄린에게 추위에 잘 견디는

실과 나무를 비싼 값으로 팔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츄린은 자기가 이렇게 실과 나무들을 키워낸 것은 자기 조국과 인민들의 장차 행복을 위해 한 것이지 결코 내 한 몸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또 미국 자본가들도 짜리 정부가 미츄린의 사업을 돕지 않으며 미츄린의 생활이 몹시 가난한 것을 보고 달라로 미츄린을 꾀여내여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몹시 애썼다.

그러나 미츄린은 《안 되오! 나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사업할 이 땅에서 한 치도 떠날 수 없소》 하고 단마디로 거절하여 버렸다.

이처럼 미츄린은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미츄린은 61세 나던 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끓어 넘치는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레닌과 쏘베트 정권은 미츄린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미츄린이 그렇게 가난과 박해도 참아 가면서 한평생을 두고 바라던 희망은 10월 혁명이 낳은 쏘베트 주권하에서 실현되여 실험포전은 크게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받는 큰 연구소로 발전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1931년 쏘련 최고 쏘베트에서는 미츄린의 위대한 공헌을 치하하여 레닌 훈장을 수여하였다. 다음 해에는 미츄린이 한평생을 두고 연구 사업을 하여 온 끄즈로브시를 미츄린쓰크로 부르게 하였다.

미츄린은 더욱 많은 열의로써 일을 계속하였고 자기가 창조한 방법과 원리에 기초하여 300종 이상이나 되는 과수—장과 식물들의 새 종류를 만들어 내였다.

위대한 자연 개조자이며 열렬한 애국자인 미츄린 할아버지는 그 고귀한 일생을 조국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바쳤다.

우리의 어린 자연 과학자들인 소년단원들은 미츄린의 학설을 깊이 연구하며 난관을 끝끝내 헤뚫고 나가는 그의 강한 의지를 배우며 또한 그의 열렬한 조국애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자.

소상을 올리는 평양 8 고급 중학교대 동무들.

박 새

북조선 쇠찌르러기

쇠더구리

해'별 따사로운 어느 봄날 평양 8고급중학교 대 5 분단 동무들은 모란봉 한쪽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아동 공원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날 과학원 후보원사 원 홍구 선생님을 모시고 동식물을 사랑하며 정성껏 기를 데 대한 분단 모임을 가지기로 한것입니다.

분단 동무들에게 에워싸인 선생님은 이들의 청을 들어 이야기를 시작 했습니다《우리 나라는 예'적부터 산좋고 물맑은 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제 놈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들자 귀중한 지하자원은 물론 유익한 동식물들 까지도 마구 잡고 찍어 내면서 아무런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과 들은 거칠어지고 유익한 동식물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일제놈들의 략탈과 파괴로 거칠어진 조국의 자연을 정성들여 가꾸며 유익한 동식물들을 보호 육성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결과 우리 나라 자연은 빠른 시일내에 그 상처를 회복하였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놈들의 만행으로 우리 나라 자연은 또 다시 무참하게 파괴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칠어진 자연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 어울리게 아름답게 가꾸고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인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번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는 유용한 동식물들을 보호 증식 할데 대한 정령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 정령은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들의 고상한 애국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유익한 동물들을 망탕 잡아 없애며 심지어 독약 폭팔물까지 써서 거의 멸종 시키다싶이 하는 일 까지 있으며 또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참을수 없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것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습니다.

조국 산야의 한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 한마리의 짐승도 모두 우리의 귀중한 보배이며 재산인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을 선두로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어려운 싸움의 나날에도 항상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 한마리 까지도 아끼고 사랑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애국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혁명 투사들 처럼 조국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 하여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 께서는 새와 짐승을 잘 보호 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 금수강산은 새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는 적막강산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새와 짐승을 보호 증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원 홍구 선생님은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소년단원 동무들이 유용한 동식물들을 보호 증식하는 사업에 앞장 서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힘주어 말씀 하시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남달리 생물에 취미를 가진 효순이가 선참으로 일어 서서 학습과 생산을 결합하여 아동 공원을 중심으로 한 모란봉 일대에 있는 꽃과 나무를 자기들의 힘으로 가꾸겠다고 하였습니다. 뒤를 이여 일어선 다른 동무들도 조국의 자연을 아름답게 꾸릴데 대한 좋은 의견과 다짐들을 하였습니다.

모임에서 매개 소년단원들은 인공소상을 한개 이상씩 만들어 올리며 꼬마 양어장, 꼬마 동물원, 꼬마 식물원, 꼬마 보호림을 만들것과 꼬마 선전대의 활동을 높일데 대한 여러가지 훌륭한 의견들을 제의 하였습니다.

봄볕을 담뿍 받은 어린 동식물 애호가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의 산야를 온갖 화초가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며 짐승들이 뛰놀고 잉어가 꼬리치는 아름다운 산천으로 꾸려나갈 굳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이날 어린 동식물 애호가들은 첫 사업으로 이미 올린 60개의 인공소상 외에 20여개의 인공소상을 또 새로 올렸습니다.

—평양 8고급 중학교대 5분단에서—

본사 기자 권 기준·

사 슴

복작 노루

수 달

검은 돈

3월 2일! 이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간직될 것입니다.

이 날은 공화국 내각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대한 결정 제 18호를 채택한 날입니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학교들에서는 이제부터는 수업료란 말조차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학교에서든지 무료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스러운 일입니까!

이는 오직 김 일성 수상님이 지도하시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산 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은 또 하나의 큰 배려인 것입니다.

동무들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지난 날의 억울했던 어린 시절의 나날을……

애타게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길 없고 배운다 하여도 마음 편히 배울 수 없었던 어둡고 괴로웠던 일제 시기를…

그 얼마나 많은 원한과 슬픔의 나날이였던가!

일제 시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돈 없고 가난한 탓으로 학교의 문 앞에도 가 볼 수 없었습니다.

설사 학교에는 다닐 수 있었드라도 그 많은 수업료며 《잡부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쫓겨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모든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중학교에 다니게 되였고 또한 이제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찌 이것 뿐이겠습니까!

나라에서는 또한 금년에 우리들이 앞으로 다니게 될 15개의 대학들과 5개의 전문 학교를 새로 세우기로 하였고 이 밖에도 많은 대학, 전문 학교들을 더 훌륭하게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더우기 행복스러운 일은 우리 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전체 학생이 금년 5.1절 전으로 훌륭한 교복들을 받게된 그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날마다 달마다 새 행복 새 기쁨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동무들! 더울세라 추울세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김 일성 수상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이야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 앞에는 빛나고도 황홀한 희망의 앞길이 활작 열리여 있습니다.

조국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무엇이든 원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워 지리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조선 어린이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오늘 남조선의 어린이들은 수업료, 《사친 회비》 《학도 호국단비》 등등 이름조차 외울 수 없는 150 여 종의 많은 《잡부금》을 학교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 돈 없고 가난한집 아이들이야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그들은 수십만의 류랑 고아들과 함께 거리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학교에서 쫓겨난 수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길마저 잃어버린 원한으로 물에 몸을 던지거나 목을 매여 죽는 등 참으로 듣기도 몸서리 처지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남조선에 뚱지를 틀고 앉아 나라의 평화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미제 원쑤놈들과 그의 앞잡이 리 승만 역도놈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철폐하는 또 하나의 행복과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행복과 기쁨을 남반부 어린이들과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길! 그것은 오직 나라를 평화스럽게 통일하는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이상 앞당겨 금년도에 넘쳐 완수하기 위해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는 참된 수상님의 어린 전사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자기를 더 잘 준비 합시다.

익환…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너희들 또 왔느냐. 이번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익환…봄철의 자연과 위생에 대한 문제들이야요.

척척 할아버지… 오라, 때가 바로 봄철이란 말이지, 참 너희들 얼굴에도 봄이 왔구나. 그래 봄철의 자연은 아름답고 신기로운 것이다. 어서 물어 봐라.

익환…할아버지 그럼 하나 묻겠어요, 훈훈한 봄'바람에 들판의 눈은 죄다 녹고 이젠 곧 봄갈이가 시작될텐데 높은 산 꼭대기의 눈은 왜 아직도 녹지 않고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허허, 높은 곳일수록 태양에 가깝고 더 많은 열을 받을텐데 의문이란 말이지?

익환…네! 그래요.

척척 할아버지…태양 광선은 공기를 극히 조금밖에 덥히지 못한단다. 공기는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받아 더워진 대지로부터 열을 받아 더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공기는 열을 적게 받으며 더욱 차게 된다. 공기의 온도는 매 100메터 올라감에 따라 약 0.5~0.6도씩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 꼭대기는 여름에도 몹시 추우며 영원히 녹지 않는 눈과 얼음이 있게 된단다.

익환…할아버지, 그러면 이른 봄에 벌판에서 나무 밑 부근에 있는 눈은 왜 먼저 녹게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그런 쉬운 것도 몰라? 그럼 먼저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너 겨울엔 왜 흰 옷보다 흔히 검은 옷을 입는지 아니?

익환…그야 흰 옷보다 검은 옷이 더 따뜻하니까 입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글쎄 검은 옷이 왜 흰옷보다 따뜻하냐 말이다.

익환…그건 잘 모르겠어요.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그 리유를 모르는게다. 흰 색은 태양 광선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지만 검은 색은 태양 광선을 거의 다 흡수하게 된단다. 때문에 겨울철에 검은 옷은 흰 옷보다 따뜻하고 여름엔 흰 옷이 검은 옷보다 선선한 것이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붉은 색갈을 띤 나무 그루의 부분은 흰 눈보다 훨씬 태양광선을 많이 흡수하고 더워지기 때문에 나무 밑 부근의 눈이 먼저 녹게 되는 것이다.

성남…할아버지 저 하나 묻겠어요. 올해의 시험 포전들에서는 땅을 거의 1메터 이상 깊이 갈아 번지는 데 그것이 다수확과 어떻게 관계되나요?

척척 할아버지…땅은 깊이 갈면 갈수록 식물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질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땅 속에 들어 있는 물과 비료 성분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성남…아니 재배 식물의 뿌리가 그렇게 1메터 이상씩이나 깊이 뻗어 들어 가나요?

척척 할아버지…허허… 식물의 뿌리는 상상 이상으로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진단다. 례를 들면 오이와 같은 연약한 식물도 0.4~0.6메터 깊이까지 뿌리가 퍼지며 수수와 모밀은 0.8~1메터, 밀과 호밀은 1~2메터, 크로바는 3~5메터 또는 그 이상 깊이로 들어 가는 것도 있단다. 뿌리는 옆으로도 퍼진다. 즉 옥수수는 1.5~1.8메터, 호박은 5메터의 넓이까지 퍼진다. 게다가 이렇게 퍼지는 어린 뿌리에서는 가는 털과 같은 수 많은 근모가 자라나 땅 속에서 물과 그 속에 용해된 광물질을 흡수한다.

성남…할아버지 그럼 한 대의 식물에서 퍼지는 뿌리의 전체 길이는 굉장히 길겠군요.

척척 할아버지…그렇단다. 한 대의 밀에서 퍼지는 뿌리의 전체 길이는 약 500메터나 되며 근모의 전체 길이는 2,000메터에 달한단다.

성남…야! 정말 굉장히 퍼지는군요.

척척 할아버지…그러니까 땅을 깊이 갈면 그만큼 식물의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질 수 있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성남…할아버지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채소원에 심는 파나 홍당무는 이른 봄에 파종하는 데 오이나 호박은 왜 그보다 훨씬 늦게 파종하게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그것은 식물의 종자가 요구하는 발아 온도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남…식물의 종자가 요구하는 발아 온도라니요?

척척 할아버지…식물의 종자가 발아하는 데는 일정한 량의 물과 공기가 요구되며 동시에 일정한 온도가 보장되여야 하는 법이다. 채소원에 심는 파나 홍당무 종자는 낮은 온도에도 발아할 수 있으며 그 싹은 봄 추위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오이나 호박과 같은 채소들은 봄 추위에 견디여 낼 수 없기 때문에 땅이 더워진 시기에 가서야 파종하게 된다.

성남…할아버지, 그럼 밭 곡식에서 보리나 완두 같은 것을 일찍 심고 조나 옥수수 같은 것을 늦게 심는 것도 그것들이 요구하는 발아 온도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군요.

척척 할아버지…그렇단다, 일찍 심은 종자들 가운데서 이따금 제대로 발아하지 않는 것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발아 온도 보다 기온이 낮아질 때 얼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영식…할아버지 이번엔 저 하나 묻겠어요, 봄철의 위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나요.

척척 할아버지…봄철에는 특히 개인 위생

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하루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조직하며 지나친 로동이나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무규률적인 생활을 피해야 한다. 몸은 항상 깨끗이 하고 조기 체조, 랭수 마찰, 기타 운동들을 적당히 하면서 몸을 튼튼히 단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봄철의 환절기에 몸이 약한 동무들에게는 흔히 우리가 감기라고 부르는 보통 감모와 류행성 감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봄철에는 언 땅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세균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가정 위생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영식…할아버지, 감기는 어째서 걸리게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우리가 감기라고 부르는 병 가운데는 류행성 감모와 보통 감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단다. 류행성 감모는 흔히 공기 전염을 하는 전염병인데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말을 할 때에 침'방울과 함께 튀여 나온 《비루스》라는 병원체가 공기중에 떠 돌다가 다른 사람의 코나 목구멍에 들어 가 병을 일으키게 된단다. 류행성 감모는 갑자기 심한 열이 나면서 앓게 되고 심한 두통이 생기며 침, 코'물, 재채기 등이 난다. 두통이 심하면 뇌막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 보통 감모는 폐염균과 같은 구균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데 외부 기온의 심한 변동, 습기, 세찬 바람 등이 몸의 온도를 빼앗음으로써 몸이 갑자기 차거워질 때 걸리게 되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모는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과 겨울 또는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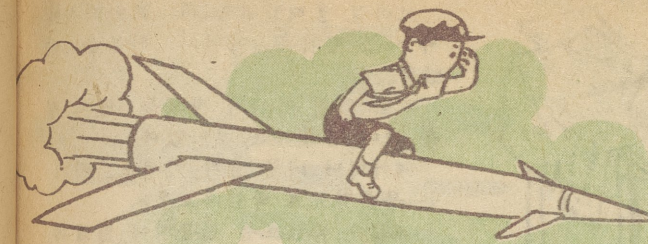
영식…할아버지, 그럼 감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그것은 무엇보다 몸을 튼튼히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기 체조, 랭수 마찰, 각종 체육 등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더운 방에서 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찬 바람 부는 밖으로 나가거나 습기 있는 찬 방에서 잠을 자거나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오래 동안 지내거나 기타 몸을 갑자기 차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류행성 감모가 돌아 가는 시기에는 환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한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에도 될수록 환자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

영식…할아버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봄철에 발생되는 기타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봄철에는 흔히 우리가 열병이라고도 하는 발진티프스와 재귀열이 발생한다. 이 병들은 모두 《이》가 퍼뜨리는 무서운 전염병들이다. 때문에 봄철의 위생에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몸에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몸을 깨끗이 하며 옷을 자주 빨아 입고 목욕을 제때에 하도록 힘써야한다.

영식…할아버진 위생에 대해서도 박사이군요.

척척 할아버지…나는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는 척척 할아버지야.

로케트려행 (7)

소년단원 동무들!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서로 짜고 남반부 우리 부모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 먹으려는 남미주 브라질, 파라과이란 대체 어떤 곳일가요?

그곳에 이미 《노예》로 팔려가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은 어떨가요?

나의 로케트는 이번에 소년단원 동무들의 간절한 마음을 싣고 남미주를 향해 려행을 떠났습니다.

(1)

나는 먼저 브라질에 도착했다.

싼파울로에서 머지 않은 커피 재배 농장에서 있은 일이다.

《아주머니 그 냄새 나는 더러운 물을 길어다 어디에 쓰세요?》

《사람이 먹는 물이 따로 없으니 가축용 저수지 물이라도 먹을수 밖에 없지 않니……》

《아니 그래 농장주놈은 일만 시키고 먹는 우물 하나 파주지 않나요?》

《놈들이야 돈이나 벌면 그만이지…남미주에 있는 3분지 2의 주민이 이런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단다!》

(2)

나는 다시 이곳 피마주 재배 농장에 가 보았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여기에 왔니?》

《나는 리 경수다. 미군 병조장 파리티노란 놈이 <양자>로 한다고 감쪽 같이 속여 데려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었단다.》

나는 격분에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였다.

(3)

브라질 동해안의 도시 포탈레시에서 나는 헐벗은 어머니 한분을 만났다.

그는 여윈 아이의 시체를 안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였다.

《어머니 너무 슬퍼 마세요. 애기는 무슨병으로 죽었나요?》

《앓다 죽었으면 원통치나 않겠다. 얘는 굶어 죽었단다.》

어머니의 피'기 없는 얼굴에는 원한의 눈물이 줄지어 흘러 내리고 있었다.

(4)

《먹을것을 달라!》《빵을 내라!》

브라질 쎄아라주의 거리거리에는 수천명 절량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쓸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주지사란놈은 식량을 줄 대신 군대를 불러 댔다.

《따따따—따따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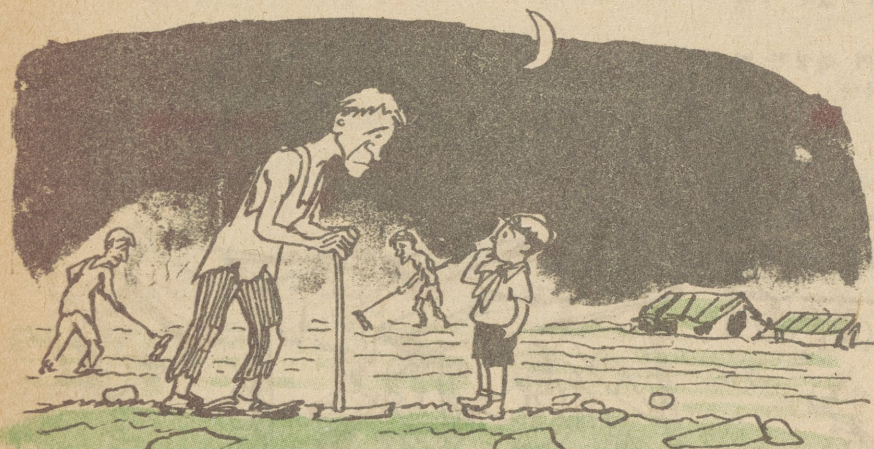
놈들의 기관총 사격에 온 거리는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어졌다.

(5)

암흑의 땅 브라질을 떠나 나는 그 곁나라 파라과이에 도착했다.

이곳 수도 아순시온에서 멀지 않은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 도착한 것은 밤중이였는데 마침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저씨들은 밤교대나요?》

《밤 교대가 다 뭐겠니! 우린 농장주놈을 위해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에 19~20시간씩 로동을 강요당하고 있단다!》

(6)

아순시온을 떠나 계속 남쪽으로 가는 길에서 나는 비참한 광경을 봤다.

노예상인의 채찍밑에 어린 노예들이 밤길을 끌려 가고 있었다.

《얘 너는 조선소녀가 아니냐? 어떻게 여기 끌려왔니?!》

《나는 박 〈이레나〉다. 부산〈성모애육원〉에서 이곳에 노예로 끌려왔다. 우리 동무들 107명도 모두 나 같이 짐승처럼 매맞으며 팔려 다닌다……》

나는 너무도 억울한 이들의 신세에 그만 치가 떨렸다.

(7)

날도 희슥희슥 밝을 무렵 나는 파라과이강 하류 이나라 국경에 이르렀다. 《여보시요! 당신들은 이 야밤중에 등짐을 지고 어디로 가나요?》《누구냐? 깜짝이야!…우리는 몰래 이 나라를 떠나는 인민들이다. 우리들은 가난에 시달리다 못하여 행여나 살길을 찾아 이렇게 국외로 도망치고 있단다.》

그렇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떠들어 대는 〈이민〉이란 새빨간 거짓 말이다.

이 나라 인민들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몰래 도망가고들 있지 않는가! 지금 파라과이를 도망친 인민들이 이 몇해에 10만을 넘는다.

(8)

나는 파라과이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젠틴에 들어 섰다.

투쿠만이란곳 근처 양치는 목장이였다. 문에 쇠가 잠겨 있는 축사 안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하고 물었드니 뜻밖에 조선말로 《나는 갇쳐 있다. 목장주인놈의 뜻대로 일을 안한다고 4개월 째나 모진 매를 맞으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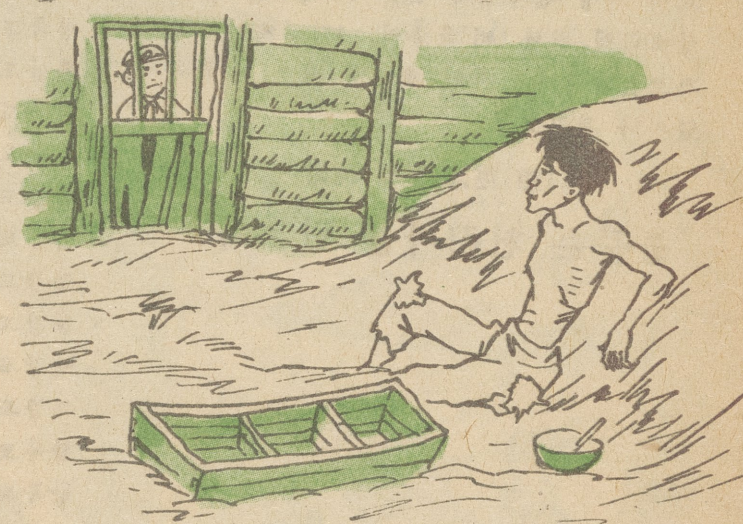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 포로되였던 아저씨는 고향인 공화국 북반부로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로 이곳에 끌려와 유색인종이라고 갖은 학대를 받고 있었다.

(9)

아르젠틴 사팔리 지방 목장 로동자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하여 《임금을 올리라!》고 파업을 일으켰다.

그런데 글쎄 목장 주인놈 앞잡이 폭력단놈들이 대낮에 파업한 로동자들을 습격해 왔다.

남미주 자본가놈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통일로 여기며 함부로 인민들을 학살하는 것이였다.

☆
☆☆

나는 남미주 려행에서 똑똑히 알았다. 미제와 리 승만이 서로 짜고 강제로 끌어 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이 멸망할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림과 학대를 겪고 있는 남반부 동포들도 공화국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얼마나 될가요?

넓이 40메터 길이 30메터 되는 꼬마 시험 포전에 1시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꼬마 기상 관측소에 있는 《우량계》는 1평방메터에 내린 비'물층이 4미리메터라고 가르쳤습니다. 시험 포전에 내린 비'물은 얼마나 될가요?

1호 현상 문제 해답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당선자

황남도 안악군 오국 중학교	신 정남
평양시 제34 중학교	김 준호
평양시 제61 중학교	손 리호
강원도 고산 제3 중학교	강 준섭
강원도 세포군 약수 인민학교	김 금화
평남도 성천 제9 중학교	한 영옥
평남도 숭호 제4 중학교	김 주용
평남도 강동 제9 중학교	주 근원
평북도 피현군 원풍 중학교	리 선옥
평북도 운전군 서삼 중학교	정 춘실
평북도 철산군 동천 중학교	박 도정
황남도 삼천군 수장 중학교	김 만길
황북도 사리원 제3 중학교	김 충광
황북도 은파군 은파 중학교	한 상운
함남도 신흥군 대동 중학교	리 일호
함남도 오로 제11 중학교	김 종열
량강도 혜산 제3 중학교	오 창호
량강도 갑산군 남평 중학교	림 경녀
자강도 위원군 한장 중학교	김 선주
자강도 송원군 월현 인민학교	김 명조
함북도 무산군 제2 중학교	김 동규
함북도 경흥군 제4 중학교	리 옥순
개성지구 개풍군 광덕 중학교	김 순옥
개성지구 판문군 전재 중학교	김 용현

모범답안

황남 안악군 오국 중학교 신 정남

정정…2호 17페지 오른쪽 기'발의 마치와 낫 우에 있는 별이 인쇄 불선명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편집 위원 김 주현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웅호 송 정우 정 래선 조 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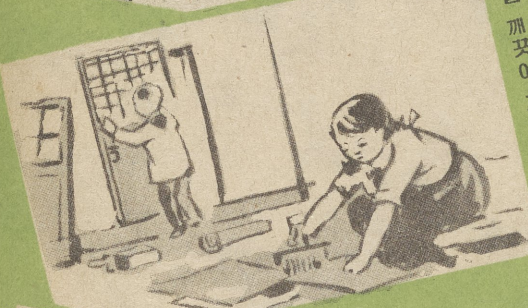
1959년 3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3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3호 (총 113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0305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깨끗하고 명랑하게!

소년들과 어른들 속에서 위생 선전 사업을 철저히 하자.

발진티브스, 재귀열 등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를 모주리 박멸하자.

겨우내 얼어 붙었던 오물더미,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자.

문풍지를 뜯어 내고 허물어진 담벽 찢어진 장판들을 깨끗이 고치자.

아침 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조기 체조와 달리기 운동을 하자.

겨울을 난 파리를 한놈도 남김 없이 때려 잡자 (봄파리 한놈은 한해에 73억마리의 새끼를 …)

옷을 항상 깨끗이 빨아 입으며 내의를 자주 갈아 입자.

오물 적치장, 변소, 축사 근처, 도랑 등에 있는 번데기를 모주리 잡아 치우자.